

옛날 제주(濟州) 탐라국(耽羅國) 때, 양이목스(梁牧使) 삼문안[三門內]¹⁾ 살아올 때, 상서울 상시관(上試官)의 멍(命)을 받아 양이목스가 목스(牧使)로 살아옴데다.

양이목스(梁牧使) 시절, 제주에서 일년(一年) 한번 백마(白馬) 백필(百匹)을 진상(進上) 올리라 하여 어느 목스(牧使)를 막론(莫論)하고 일년이 다 구물민 입춘(立春) 새해 나기 전에 백마(白馬) 백필(百匹)씩 진상(進上)을 올림데다.

초편(初番) 이편(二番) 삼편(三番)까지는 진상(進上)을 고이 올리고 닢번차²⁾ 백마 백필을 진상 하저 흘 때, 양이목스(梁牧使)가 제주목스(濟州牧使)로 내려옴데다.

백마 백필을 진상(進上) 바찌저³⁾ 삼문안[三門內] 마장(馬場)에 모아 놓고 보니 백마(白馬) 백필에 탐심(貪心)이 나 양이목스(梁牧使)가,

“백마(白馬) 백필을 진상(進上) 올리민 제죽백성(濟州百姓)이 곤경(困境)에 빠져 어느 마장(馬場)이나 탄복(歎服)과 근심을 아낼 수⁴⁾ 엇습네다.”

상시관(上試官)에 진정(陳情)을 올려두고,

“진상(進上) 가는 물이주마는⁵⁾ 상시관(上試官)보다 내 문저 먹으민 어찌리 ……”

마장(馬場)에 마부(馬夫)를 불러다 놓고,

“여태지금 진상(進上)은 마부(馬夫)덜 손으로 앓다 바찌실망정⁶⁾ 금번부떠는 나가 직접 상시관(上試官)에 진상 바짚로라.”

어느 진상 때나 혼 번에 백필(百匹)을 문⁷⁾ 받지 않고, 상시관 눈에 보기긋인 건 다 뒤흔(退斥)을 당하여 마부(馬夫)덜이 그 데충(代充)을 구해야 보네쟁⁸⁾ 혼민⁸⁾ 어느 때나 수심(愁心)이 아이 뒤흔고 걱정이 아이 뒤흔 때가 엇입네다.

이번은 양이목스(梁牧使)가 목스(牧使)대로 진상(進上)을 가겠노라 하니, 마장(馬場)엿 마부(馬夫)덜은 이젠 살았젠 지꺼져⁹⁾ 흠네다.

“어서 걸랑 그럽소서.”

백성(百姓)과 마부(馬夫)덜 손으로 화북(禾北) 돈짓가름¹⁰⁾으로 마선(馬船)을 해야 백마(白馬) 백필(百匹)을 좇어 시꺼¹¹⁾ 다 조력(助力)을 하옵네다.

1) 삼문안(三門內) : 제주성 3문(東門·南門·西門) 안.

2) 닢번차 : 네번째.

3) 바찌저 : 바치고자.

4) 아낼 수 : 아니할 수.

5) 물이주마는 : 말이지마는.

6) 앓다 바찌실망정 : 가져다 바쳤을망정.

7) 문 : 모두.

8) 보네쟁 혼민 : 보내자고 하면.

9) 지꺼져 : 기뻐.

10) 돈짓가름 : 화북리(禾北里)의 동네 이름.

11) 좇어 시꺼 : 주워 실어.

양이목스(梁牧使)는 전배독선[全船獨船]을 하여 진상(進上)바찌레 가노랜 허연 영암(靈岩) 덕진 두리로 베[船]를 부쳐, 한양(漢陽) 고을 어느 관중마다 Deng기명¹²⁾ 백마(白馬) 백필(百匹)을 다 풀고 그 돈으로 물품(物品)을 산 전배독선[全船獨船]하여 도라와 쥘데다.

상시관(上試官)에선 첫번차에¹³⁾ 백마 진산이 아니 오니 양이목스(梁牧使)가 언만훈¹⁴⁾ 긴력(筋力)과 고집이 있는가 하여 독촉(督促)을 아니 쥘데다.

양이목스는 첫번 진산이 고이 지나가고 마주막¹⁵⁾ 지나 고이 지나카 하여¹⁵⁾ 첫번 이차번(二次番) 제삼편(第三番)¹⁶⁾ 백마 삼백필(三百匹)을 진상(進上) 아이 바찌 문딱¹⁶⁾ 양이목스 제물(財物)이 쥘데다.

제삼편(第三番)¹⁷⁾ 진상을 아니하니, 상시관(上試官)에선 하졸(下卒)을 제주(濟州)로 보내여 이 정부(情報)를 조사하여 오랜¹⁷⁾ 분부(吩咐)가 느립데다.

하졸(下卒)이 입도(入島)해야 조사를 하고 보니 양이목스이 괘씸하구나.

금부도스(禁府都事) 자강놈(刺客一)을 앞세우고 양이목스(梁牧使) 목을 베어 올리랜 제주(濟州) 레¹⁸⁾ 보넵데다.

양이목스 눈치를 알아채와 금부도스(禁府都事)가 오게 쥘 때,

“제주(濟州)에 어느 누게 가진 베[船]가 기중(其中) 뻥르고 쥘것느냐?”

이방(吏房) 성방(刑房)을 불러 멍(命)을 누리우니, 하졸(下卒)에게 분부가 하달(下達)되여, 제주 고동지영감(高同知令監) 베[船]가 기중(其中) 조와지다 하여, 고동지 베를 화북(禾北) 돈짓개로 디려메랜 쥘데다.

양이목스가 유람(遊覽)을 간다 하여 단독(單獨)으로 고동지영감(高同知令監)하고 사공(沙工)을 거느려아전¹⁹⁾ 돈짓가름으로 베를 떠웁데다.

제주(濟州) 물믈를 지나 울돛목²⁰⁾을 당하니 난디 웃인 베[船] 한척[一雙]이 맞걸어, 고사공(高沙工) 몸받은 베[船]에 대는 걸 보니, 금부도스(禁府都事)와 자강놈(刺客一)이 올른 베가 적실(適實)하웁데다.

금부도스(禁府都事)가,

“어들로 가는 베요?”

고사공(高沙工)이 양이목스(梁牧使)보다 먼저 대답하되,

“제주(濟州) 양이목스가 유람가는 베요.”

그 말 끄때 양이목스가 ‘하차 일이 틀렸구나.’ 양지엔²¹⁾ 방울뚱이 느립데다.

12) Deng기명 : 다니면서.

13) 첫번차에 : 첫번째에.

14) 언만훈 : 얼마나 한.

15) 지나카 하여 : 지날까 하여.

16) 문딱 : 모두.

17) 오랜 : 오래고.

18) 제주(濟州)레 : ‘-레’는 -로. 향격(向格)

19) 거느려아전 : 거느려서.

20) 울돛목 : 진도(珍島) 동쪽 명랑해협(鳴梁海峽).

그 말 들은 금부도스(禁府都事), 양이목스 올른 벵장으로 튀여 올르멍,

“어느 게 양이목슬러냐?”

양이목스 언뜻 일어사멍²²⁾,

“나가 양이목스(梁牧使)다.”

금부도스도 비창금(槍劍)을²³⁾ 내여들고 즈강(刺客)놈은 즈각칼[刺客刀]을 휘둘러 양이목스 한범
궂²⁴⁾ 덤벼드니, 우김 썬 양이목스 혼 손으로 드리받아 즈각(刺客)놈의 쥘 즈각칼이 눈도 꺾박하
는 새 옷이 양이목스 손에 쥐여져, 일광빛(日光—)이 비추듯이 하늘에서 번게 치듯 혼번을 휘둘르
니 즈각(刺客)놈도 머리가 간 곳 엇고 몸천²⁵⁾만이 미리에기 삼성제²⁶⁾ 저 절고개²⁷⁾ 올릅데다. 걸
싼²⁸⁾ 금부도스(禁府都事)도 비창금(槍劍)을 내여놓고 삼식번을 휘놀려 벵락(霹靂)궂 뜯 소리를 질
러야 양이목스(梁牧使)안테는 어찌홀 줄을 몰릅데다. 마주막에 금부도스도 양 흘목이²⁹⁾ 절박(結
縛)혼 것궂 온 몸이 자려져 양이목스 앞의 양 무릅을 끌려 앓아 사과(謝過)의 말썸을 올립데다.

양이목스(梁牧使) 호령(號令)하뉘,

“내 이럴 줄도 알았노라. 금부도스(禁府都事) 들어라 하니, 우리나라 상시관(上試官)이 굶주리
는 벵성(百姓)을 조은 시상(世上) 살리겟다 다스리고, 벵성(百姓)은 잉금을 모사³⁰⁾ 혼 믋음 혼 뜻
혼 집안 혼 가족(家屬)궂 살아보젠³¹⁾ 하는 모든 벵성에, 특(特)이나 풀쌍혼 제쥬 벵성(百姓), 일
년 일도(一年一度) 벵마 벵필(白馬百匹)씩 진상(進上)을 올리라 하니, 잉금이 벤덜³²⁾ 언매나³³⁾ 큰
베건디,³⁴⁾ 일년에 벵마 벵필씩을 먹고 새기는 베가 있겠느냐? 잉금이 먹는 벵마 벵필 진상(白馬
百匹進上) 나도 혼번 먹어 보저 입을 벌려 먹었더니, 벵마 벵필 다 생키도³⁵⁾ 못하코 제주(濟州)
풀쌍하코 굶는 벵성 생각하니, 산 짐승이 목에 걸려 목 알레레³⁶⁾ 누리질 앓더라. 하단 하단³⁷⁾ 벵
마 벵필(白馬百匹)을 육지(陸地) 모든 벵성안티 갈라주고 우리 제주서 귀중(貴重)혼 물품을 얻어
제쥬 벵성을 도웁³⁸⁾ 이 내 몸이다. 너가 나 목을 비잔덜³⁹⁾ 하늘님인덜 무심홀 수 있겠느냐? 자,
부데 이 말을 용상(龍床)에 앓인 잉금에게 잘 여쭙와 올려라.”

양무릅[兩膝] 끌려 이 말 듣던 금부도스(禁府都事) 팔짝 튀여 양이목스(梁牧使) 상통이⁴⁰⁾를 잡

21) 양지엔 : 얼굴엔.

22) 언뜻 일어사멍 : 얼른 일어서면서.

23) 비창금(槍劍) : ‘비-’는 해녀 기구. ‘비창’에 유추(類推)되어 붙은 조운음(調韻音).

24) 한범 궂 : 큰 범같이.

25) 몸천 : 육신(肉身).

26) 미리에기 삼성제 : 물결을 일컫는 말.

27) 절고개 : 물결고개. 물결굽이.

28) 걸싼 : 행동이 빠른. 날쌌.

29) 양 흘목이 : 두 팔목이.

30) 모사 : 모시어.

31) 살아보젠 : 살아보려고.

32) 벤덜 : 배(腹)인들.

33) 언매나 : 얼마나.

34) 베건디 : 배길레.

35) 생키도 : 삼키도.

36) 알레레 : 아래로.

37) 하단 하단 : 하다가 하다가.

38) 도웁 : 도운.

39) 비잔덜 : 베자고 한들.

고 감태줄 7찌⁴¹⁾ 허꺼진⁴²⁾ 머리 뱃땃줄에⁴³⁾ 콩콩이 메여, 고사공(高沙工)보고,

“뱃땃줄을 등기라.”

고사공은 털리는 양손[兩手]으로 뱃땃줄을 잡아, 양이목스 어느 새 돛대에 드라진⁴⁴⁾ 몸이 뒹고, 금부도스(禁府都事)에게 말을 하네,

“비창금(槍劍)으로 어서 나 목을 베라.”

금부도스(禁府都事)도 비7찌⁴⁵⁾ 눈물을 흘리며 은하비창금을⁴⁶⁾ 한번을 돌르니, 양이목스 혼 몸이 두게 뒹여집데다.

뱃장 알[下]로 털어지는 양이목스 몸천[肉身]은 요왕국(龍王國) 절고개에 털어지니, 어느 새 청룡(靑龍) 황룡(黃龍) 백룡(白龍)으로 몸이 변색(變色)돼야 지픈⁴⁷⁾ 물속 요왕국(龍王國)으로 들어갑데다.

양이목스 머릴 안아 붉은 피를 다끄고⁴⁸⁾ 두판⁴⁹⁾ 우의 머릴 놓아 흰포⁵⁰⁾를 더프고⁵¹⁾ 금부도스(禁府都事) 올른 베(船)에 이물[船頭]로 놓았더니, 몸천 웃인 양이목스가 고사공(高沙工)안티 마주막 소원(所願)으로,

“혼고향(還故鄉) 들어가건, 영평(永平) 팔년(八年) 을축(乙丑 三月) 열사을[十三日] 즈시생(子時生)은 고의왕(高爲王) 축시생(丑時生)은 양의왕(梁爲王) 인시생천(寅時生天) 부의왕(夫爲王) 삼성(三姓) 가온데, 토지관(土地官) 탐라 양씨(耽羅梁氏) 조손만데(子孫萬代)7지 데데전손(代代傳孫)을 해야 신정국⁵²⁾을 내풀리고 이 내 역스상(歷史上)을 신평어⁵³⁾ 난산국을 신평민 우리 조손덜에 만데유전(萬代遺傳) 시겨 주마.”

몸천 웃인 머리로 입문을 올려⁵⁴⁾ 말씀하고 고사공(高沙工)을 이별하고, 상시관(上試官)에 올라갑데다.

금부도스 양이목스 목을 바찌웁고 양이목스 모든 스실(事實)을 상시관(上試官)에 여쭙와 양이목스 혼몸의 희생(犧牲)으로 제주(濟州) 어려운 마장(馬場) 백마 백필(白馬百匹) 진상(進上)을 도면(圖免)함데다.

이 조상(祖上)이 고사공(高沙工)이 혼고향(還故鄉)허여 토지관 양가(土地官梁哥)에 상가지로⁵⁵⁾

40) 상통이 : 상토.

41) 감태줄 : 해조류(海藻類)의 한 가지.

42) 허꺼진 : 허트러진.

43) 뱃땃줄 : 돛대줄.

44) 드라진 : 달아진. 달려메어진.

45) 비7찌 : 비(雨)같이.

46) 은하비창금 : 은창검(銀槍劍). 은창검이 '은하(銀河)' '비창' 두 말과 유추 조음되어 이루어진 말.

47) 지픈 : 깊은.

48) 다끄고 : 닦고.

49) 두판 : 배의 이물 쪽 뱃장을 덮는 뚜껑.

50) 흰포 : 흰 보자기.

51) 더프고 : 덮고.

52) 신정국 : 무악기(巫樂器) 소리를 일컫는 말. 신정국 태추태.

53) 신평어 : 풀어.'신-'은 접두사(接頭辭).

54) 올려 : 열어.

55) 상가지로 : 윗가지 곧 장손(長孫)으로의 뜻.

줄이 벌어, 큰곳에는 열두석시 중당클에 ㅅ섯석시⁵⁶⁾ 앓인제에 삼석시(三席) 헤[年] 넘어가는 철갈
이에 신과세(新過歲)를 받아오던 양이목스 난산국⁵⁷⁾ 과광성에 신푸오니,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리
는 대로 조손번성(子孫繁盛) 시기웁고 만대유전(萬代遺傳) 시겨줍서.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옛날 제주 탐라국 시절, 양목사가 제주성 삼문안에서 살 때, 서울 상시관의 명을 받아 양목사
가 목사벼슬을 받읍디다.

그러한 양목사 시절, 제주에서 일년에 한번 백마 백필을 진상올리라 하였으므로 어느 목사를
막론하고 일년이 다 저물게 되면 새해 들어 입춘이 들기 전에 백마 백필씩 진상을 올립디다.

한번 두번 세번까지는 진상을 고이 올리고 네번째 백마 백필을 진상하려 할 때, 양목사가 제주
목사로 내려옵디다.

백마 백필을 진상바치려고 제주성 삼문 안 마장에 백마를 모아 놓고 보니, 갑자기 백마 백필에
탐심이 나서 양목사는,

“백마 백필을 진상 올리면 제주 백성이 곤경에 빠져 어느 마장이나 탄식과 근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상시관에게 진정을 올려두고,

“진상 올리는 말이지마는 상시관보다 내가 먼저 먹으면 어찌리 ……”.

이렇게 마음 먹고 마장의 마부를 불러다 놓고,

“여태까지 진상은 마부들 손으로 갖다 바쳤지마는 이번부터는 내가 직접 상시관에게 진상을 바
치겠노라.”

어느 진상 때나 한꺼번에 백필을 전부 바치지 못하고, 상시관 눈에 보기 굶은 것은 다 퇴척 당
하여 마부들이 그 대충을 구하여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수심이 안 되고 걱
정이 안 된 때가 없읍디다.

이번은 양목사가 스스로 진상을 가겠노라고 하니, 마장의 마부들은 이젠 살았다며 기뻐합디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과 마부들 손으로 화복 돈짓가름으로 마선을 준비하여 백마 백필을 싣는데 모두 다 조력
을 아끼지 않읍디다.

양목사는 전배독선을 하여 진상바치러 간다 하고 영암 덕진다리로 배를 대어, 한양 고을 어느
관중마다 다니면서 백마 백필을 다 팔고, 그 돈으로 물품을 사 전배독선에 싣고 돌아와 팝디다.

상시관에서는 첫번부터 백마를 진상하려 오지 않으니, 양목사가 얼마만한 근력과 고집이 있는
가 하여 독촉을 하지 않읍디다.

56) ㅅ섯석시 : 여섯 석(席).

57) 난산국 : 본래 태어난 곳과 내력.

양목사는 첫번 진상을 하지 않아도 독촉하지 않고 고이 지나가니, 마지막까지 고이 지나겠지 하여 한번 두번 세번까지 백마 삼백필을 진상바치지 않고 가져 버리니, 모두 양목사 재물이 된다.

세번까지 진상을 올리지 않으니, 상시관에서는 하졸을 제주에 보내어 어떤 일인지 전말을 조사해 오라고 분부를 내립디다.

하졸이 입도하여 조사를 해 보니, 양목사가 껄뽀하구나.

그대로 보고를 하니, 상시관에서 금부도사와 자객놈을 시켜 양목사의 목을 베어 올리라고 제주로 보냅디다.

양목사는 눈치를 알아채고 금부도사가 오게 될 때,

“제주에 어느 누구의 배가 가장 빠르고 좋냐?”

이방 형방을 불러 알아보라고 명을 내리니, 곧 하졸에게 분부가 하달되디다. 제주 고동지 영감 배가 그 중 가장 빠르고 좋다고 하자, 고동지 배를 화북 돈짓개로 들여 매라고 합디다.

양목사가 유람을 간다 하고 단독으로 고동지 영감과 사공을 거느려 돈짓가름으로 배를 띄웁디다.

제주 수평선을 지나 울돌목에 이르니, 난 데 없는 배 한척이 마주 달려와 고사공의 배에 갖다 붙이는 걸 보니, 금부도사와 자객놈이 탄 배가 적실합디다.

금부도사가,

“어디로 가는 배요?”

고사공이 양목사보다 먼저 대답하되,

“제주 양목사가 유람가는 배요.”

그 말 끝에 양목사가 ‘아차, 일이 틀렸구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내립디다.

그 말을 들은 금부도사는 양목사가 탄 배 위로 튀어 오르며,

“어느 것이 양목사냐?”

양목사가 벌떡 일어서면서,

“내가 양목사다.”

금부도사도 창검을 꺼내어 들고 자객놈은 자객칼을 휘두르며 양목사에게 큰 범같이 덤벼드는데, 날쎈 양목사는 한 손으로 받아 치니 자객놈이 쥔 자객칼은 눈깜짝하는 사이에 양목사 손에 쥐어집디다. 일광빛이 비치듯이 하늘에서 번개 치듯 한번을 휘두르니 자객놈의 머리는 간 곳 없고 육신만이 바닷물 속으로 떨어집디다. 날랜 금부도사도 창검을 꺼내어 삼세번을 휘두르며 벽력같은 소리를 질렀지만 양목사한테는 어찌할 수가 없습디다. 마지막에는 금부도사도 두 팔이 결박당한 것같이 온 몸에 힘이 빠져 양목사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의 말씀을 올립디다.

양목사가 호령하되,

“내 이렇게 될 줄도 알았노라. 금부도사 들어라. 우리나라 상시관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잘 살리겠다며 다스리고, 백성은 임금을 모시며 한 마음 한 뜻 한 집안 한 가족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모든 백성 중에 특히 불쌍한 제주 백성은 일년에 한번 백마 백필씩 진상

을 올리라 하니, 임금의 배가 얼마나 큰 배이길래 일년에 백마 백필씩을 먹어 치워 버리느냐? 임금이 먹는 백마 백필 진상 나도 한번 먹어 보려고 입을 벌려 먹으려는데, 제주의 불쌍하게 굶는 백성을 생각하니, 백마 백필 다 삼키지도 못하고, 산 짐승이 목에 걸려 목 아래로 내려가질 않더라. 그래서 곰곰히 생각하다가 백마 백필을 육지에 싣고 가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제주에서 귀중한 물품을 얻어 돌아와 제주 백성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 내 몸이다. 네가 나의 목을 베자고 하면 하늘님인들 무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 부디 돌아가면 오늘 내가 한 이 말을 용상에 앉은 임금에게 잘 여쭙 올려라.”

양무를 꿇고 이 말 듣던 금부도사가 펄쩍 뛰어 양목사의 상투를 잡고 감태줄같이 흐트러진 머리를 돛대 줄에 톱톱 묶어 매어, 고사공에게,

“돛대 줄을 당겨라.”

고사공은 떨리는 두 손으로 돛대 줄을 잡아 당기니, 양목사는 갑자기 돛대에 매달린 몸이 된다. 양목사가 할 수 없이 매달린 채로 금부도사에게 말을 하되,

“창검으로 어서 나의 목을 베어라.”

금부도사도 억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창검을 한번 휘두르니, 양목사의 한 몸이 두 동강 나 버린다.

배 밑으로 떨어지는 양목사 육신이 용왕국 물결 속으로 떨어지자, 어느 새 청용 황용 백용으로 몸이 변색되어 깊은 물속 용왕국으로 들어간다.

피투성이가 된 양목사 머리를 끌어 안아 붉은 피를 닦고, 두판 위에 머리를 놓아 흰 보자기로 덮고 금부도사가 탄 배의 이물에 갖다 놓았더니, 육신이 떨어져 나간 양목사가 고사공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말한다.

“환고향하여 들어가거든, 영평 팔년 을축 삼월 열사흘 자시생은 고위왕, 축시생은 양위왕, 인시생천 부위왕 삼성 가운데, 토지관 탐라 양씨가 자손만대까지 대대전손을 하여, 악기를 울리며 이 나의 슬픈 역사를 풀어 주면 우리 자손들을 만대유전 시켜 주마.”

육신 없는 머리로 입을 열어 말스민 후, 고사공을 이별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금부도사가 돌아가 임금에게 양목사의 목을 바치고 양목사가 한 모든 사실을 상시관에게 여쭙자, 그후로 양목사 한 몸이 희생됨으로 인해 제주에서는 마장에 백마 백필을 모아 진상하는 어려운 일을 모면한다.

이 조상은 고사공이 환고향한 후, 토지관 양씨의 장손으로 줄이 뻗어, 큰곳에는 열두석시, 중당 클에 여섯석시, 앞은제에 삼석시, 해 넘어가는 철갈이에 신과세를 받아오던 양목사 내력을 풀어드리니, 일천간장 풀리는 대로 자손번성 시켜주고 만대유전 시켜 주십시오.